



### 십자가와 행복(마태오 10,37-42)

“고통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어쩌다 초대 교회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순교자들의 사화를 읽을 때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조여 옵니다. 십자가형이 그렇게도 가혹하고 비참했던가를 지금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십자가 형벌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란 곧 피와 땀과 고통을 대신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기에 고통을 원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십자가는 달갑지 않으며,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란서의 유명한 문학가 찰스 톨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행복도 원하지 말라’ 참으로 고통 즉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



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으로 한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신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는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되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충분한 힘과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할까봐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의 좁은 가시밭길을 오르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극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종말에 행복하기보다는 틀림없이 멸망할 비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도 십자가를 외면한 채 고통을 피하고 오히려 쾌락만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용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러보고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쾌한 나날의 유혹과 괴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용기와 희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면 철수록 더욱 고통은 심해지며,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갈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같이 만남의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질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형락 신부-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선요가’ 무료 강좌 등근빛도서실

가든그로브에 있는 원불교 오렌지카운티 교당(주임교무 이정길) ‘등근빛 도서실’ (13091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3)이 ‘무료 선요가 강좌’ 를 개설했다.

개설 기간은 4월 4일(화)부터 6월 6일(화)까지로, 이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강좌가 운영된다.

이정길 주임교무가 강사로 나서 시니어를 위한 요가 동작 설명 및 실습과 선과 명상의 시간을 인도한다.

교당 측은 “강좌를 통해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 고 전했다.

5,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무료 대여하고 있는 ‘등근빛도서실’ 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연다.

▶ 문의: (714) 638-0404  
wonbuddhismoc@gmail.com

### 가정선교 세미나 미주가정선교회

미주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하는 ‘가정선교 세미나’ 가 오는 5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수의 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이재근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 가정 선교, 가정 문제 해결 방안’ 강의하고 참가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한다.

참가비는 성인 부부 50달러, 목회자 부부 및 개인은 30달러이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 또는 전화(562-714-0691)로 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참가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준다.

참가비를 수표로 보낼 경우, Pay To Order에 LLMC로 적고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송부하면 된다.

▶ 문의: (562) 714-0691



# 사장님, 링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